

## 베드로전서

### ■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삶 (220907)

#### 1. 본문의 문맥

- 1.1.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,
- 1.2. 이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!
- 1.3. 이러한 거룩함은 특별히 관계 속에 드러나게 됨
- 1.4. 비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을 향해 ( )을 잃지 않음

#### 2. 아내들을 향한 권면: ( )하라(3:1)

- 2.1. 자기 남편에게 "순종"(ὑποτάσσω)하라
  - 2.1.1. 이들은 불신자 남편과 결혼 관계에 있는 신자들 → 문맥상 남편에 의한 ( )을 전제
  - 2.1.2.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관행에 충실함
  - 2.1.3. 그러나 남편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→ 제한적 의미의 순종

"아내는 자신만의 친구를 두어서는 안 되며 남편의 친구를 자신의 친구로 삼아야 한다. 신들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친구다. 이런 이유로 아내는 남편이 숭배하는 신들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"—그리스의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의 글 <신부와 신랑에게 주는 충고> 중에서.

#### 2.2. 거룩한 행실을 드러냄

- 2.2.1. 비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남편을 향한 ( )의 마음을 잃지 않음
- 2.2.2. 동시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
- 2.2.3. 사람들은 비난하면서도 성도들의 반응을 예의주시
- 2.2.4. 이것이 가져올 효과 → 남편의 ( ) (3:1)

#### 2.3. 구체적인 거룩의 모습

- 2.3.1. 아내의 하나님을 향한 ( ) (3:2) → 남편에게도 유익이 됨
  - A. 두려움 = 하나님을 경외함
  - B. 정결함 = 정절과 신실함
- 2.3.2. 외모의 치장에만 몰두하지 않음(3:3; 딤후 2:9-10) → 세상이 주목하는 아름다움
- 2.3.3. 속사람의 단장(3:4) →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(삼상 16:7)
  - A. "숨은 사람"—"속사람"(롬 7:22; 엡 3:16) → 새로운 성품과 경향성을 가지게 된 자아
  - C. "온유와 안정"—사람과 상황의 변화에 동요되지 않는 따뜻하고 차분한 성품
    - C1. 하나님에 대한 깊은 ( )에서 파생되는 성품
    - C2. 자신을 드러내어 주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음
- 2.3.4. 구약의 ( )을 따름(3:5-6)

- A. "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" → 공통점 "순종"
- B. 사라의 예: 남편 아브라함을 "주"로 호칭(창 18:12) →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름
- C. "선을 행하고"—이 경우 불신자 남편을 따름
- D. "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음"—설령 불신자 남편이라도 순종해도 괜찮음
- E. "그의 딸이 된 것이니"—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!

### 3. 남편들을 향한 권면: ( ) 여기라(3:7)

- 3.1. "지식을 따라"—어떻게 해야 할 지를 알고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함
- 3.2. 아내는 "더 연약한 그릇"
  - 3.2.1. 그릇은 "몸"을 가리키는 비유
  - 3.2.2. 연약하다는 말은 그야말로 약하다는 뜻 → 더 연약한 몸
  - 3.2.3.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, ( )으로 약함
  - 3.2.4. 그러므로 더 귀히 여김(고전 12:22-23; 마 18:6) → 자연스러운 반응
- 3.3. "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"
  - 3.3.1. 생명의 선물 = 영생(요 17:3)
  - 3.3.2. 아내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
- 3.4. "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"
  - 3.4.1. 가장 작은 단위의 신앙공동체
  - 3.4.2. 상호 존중의 태도가 상실되었을 때 → 영적인 ( )이 됨(마 5:23-24)
  - 3.4.3. 배우자와의 화목한 관계가 신앙의 기초가 됨